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은 소나무의 뿌리를 갇아 먹고 있는 개미를 잡아 없애게 하시고, 그와 같이 신앙의 뿌리를 벌레가 먹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하셨다.
2.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에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삼위 사랑도 있다. 자기 신앙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씀과 기도의 약으로 치료하여 개미를 잡아 없애듯 해야 된다.
3.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깨달아라.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게 하시다가, 성령님의 목적지로 가도록 감동을 주어 들어 행하신다.
4.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 차원이 높아서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가 행할 것은 잘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는 중에 성령님이 행할 것을 보여 주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제야 알고 행하게 하신다.
5. 어떤 나무를 평가하려면 그 나무에 대해 다 배우고 평가해야 온전하듯이,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아보고 배우고 평가해야 온전하다.
6. 어떤 나무는 주인도 그 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일반 나무 취급한다. 그 나무가 희귀종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혈값에 사가 버렸다. 사람도, 만물도 아는 자가 귀하게 대해 주어 주인이 된다.